

출발은 따로 집결은 함께... 편법 여행 다반사

세월호 2주년 집중점검
안전 대한민국 현주소는

<하>주먹구구 수학여행 언제까지

100명 미만 소규모 여행 말뿐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 지자체 연계 안전대책 세워야

학교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학생 안전사고는 하루평균 10.6건이 발생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은 말뿐이다.

14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890건이었다. 광주가 2667건, 전남이 1223건으로, 방학과 주말·휴일을 포함해 하루평균 10.6건 발생했다. 특히 광주는 학생 수가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533건에서 2014년 2635건, 지난해 2667건으로 2년새 5.3% 늘어났다.

사고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인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광주의 경우 전체의 37%인 986건이 중학교에서 발생

했다. 이어 고등학교 786건(29.5%), 초등학교 777건(29.1%), 유치원 109건(4.1%)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대다수가 학생부주의(1858건, 69.6%)와 우발적(925건, 34.7%)으로 발생했고, 장소는 운동장(874건, 32.8%)·체육관(591건, 22.2%)·교실(401건, 15%)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통계를 학생이 개인보험으로 처리했거나 등하교길 교통사고는 제외돼 실제 안전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감소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감소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감소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높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교육부와 광주·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의 여건은 소규모 테마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 A초등학교는 다음달 여수·해양권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수학여행 대상인 6학년이 230명가량인 이 학교는 소규모(100명 이하) 테마형을 표방, 3개조로 나눠 떠날 예정이다.

그러나 코스는 같다. 일정도 같다. 숙소도 식당도 같다.

1조가 레일바이크→진남관→아쿠아리움→오동도→향일암 코스다. 2조는 향일암→레일바이크→진남관→오동도→아쿠아리움이고, 3조는 아쿠아리움→오동도→향일암→레일바이크→진남관이다. 같은 코스를 시간차를 두고 다녀오는 것이다. 버스만 100명 이하로 나눠 타고 가는 것이다.

이 수학여행은 '대규모 관광형'일까, '소규모 테마형'일까.

교육당국이 소규모 수학여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수학여행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기준이 소규모 수학여행 60% 이상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 2014년 34.2%만이 소규모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학생수 1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65개교 중 149곳이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이중 34.2%인 51곳만이 소규모였다. 60%에 못미친 탓에 광주시교육청은 최하점을 받았다.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도 골칫거리다. 안전요원의 책임의무가 없다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다. 만약 안전요원의

지도아래 견널목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가 질까. 안전요원이 아닌 인솔교사와 학교 측이다. 예산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안전요원이 1박2일 동행한다면 1인당 5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안전요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없는 탓에 그만큼 학생들의 체험활동비용은 줄어든다.

연령대도 고민이다. 65세가 넘는 고령의 안전요원이 활동하면서 학교 측은 '오히려 우리가 안전요원을 모셔야 할 판'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반대도 있다. 여학교의 경우는 젊은 안전요원이 답답지 않다.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수학여행 해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여행상품을 만들고 숙박·음식점 등의 안전관리를 직접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일 광주시교육청 학생생활지원팀장은 "소규모 테마여행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자체·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위생·소방 등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맡아야 실패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일 세월호 2주기... 곳곳 추모행사

평택항서 씻김굿·추모공연 광주선 추모대회·도보순례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가 16일 진도 평택항과 광주 곳곳에서 열린다.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진도군범군민대책위'는 세월호 사고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미수습자의 온전한 귀환을 바라는 의미를 담아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도군 임회면 평택항 일원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추모행사는 분향소 헌화, 추모식, 추모편지 낭독, 추모풍선 날리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또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9명의 온전한 귀환을 바라는 진도씻김굿보존회의 '진도씻김굿'과 금비예술단의 '지금 그리고 여기' 등 추모 공연이 이어진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평택항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세월호 참사 2년 미사'가 봉헌 된다. 광주·전남지역 가톨릭 신자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도교회연합회

의 추모예배와 깃발 차광 퍼레이드, 진도불교사암연합회의 법회와 풍등 날리기 등 추모행사가 펼쳐진다.

'민주주의광주행동'과 '세월호 3년상을 지르는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다시 봄, 기억하라! 행동하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는 기독교단체연합회배가 열리고, 이어 참여자들이 광주YMCA에서 천변로와 금남로공원을 거쳐 5·18민주광장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장만재 전남교육감은 15일 평택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4일 평택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주시민모임'도 14일 오후 7시 광산구 수원지구 호수공원에서 새봄·은빛초 학생 150여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2주기 광산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에어백 36개 설치...무게 8300t → 3300t 내달부터 본격 작업 나서 7월 통째 인양

세월호 인양 어떻게 하나

세월호 인양의 본격적인 작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 선체를 올 7월까지 통째로 인양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수(뱃머리) 들기와 리프팅 프레임 설치 등 세월호 인양을 위한 고난도 공정이 5월부터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인양팀은 우선 세월호 내부 탱크에 공기를 넣고 외부에 에어백을 설치해 부력을 확보한 뒤 뱃머리를 들어 올려 선체 아래에 리프팅빔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상크레인으로 리프팅빔을 끌어올려 플로팅 독에 올리고 플로팅 독을 부상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수습된 희생자 9명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재펜스 36개를 미리 설치했다.

이달 말까지 인양팀은 선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막대형 에어백 27개와 폰톤(물탱크 형태의 대형 에어백) 9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물속에 가라 앉은 세월호에 부력을 더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중에서 세월호의 중량은 8300t 가량

인데 부력 확보 작업이 끝나면 중량이 3300t으로 줄어든다.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 끝나면 뱃머리를 5도 가량 올리는 작업을 5월 한 달간 지속한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처음으로 선체가 움직이게 되는 데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면 부력이 사라지면서 하중이 늘게 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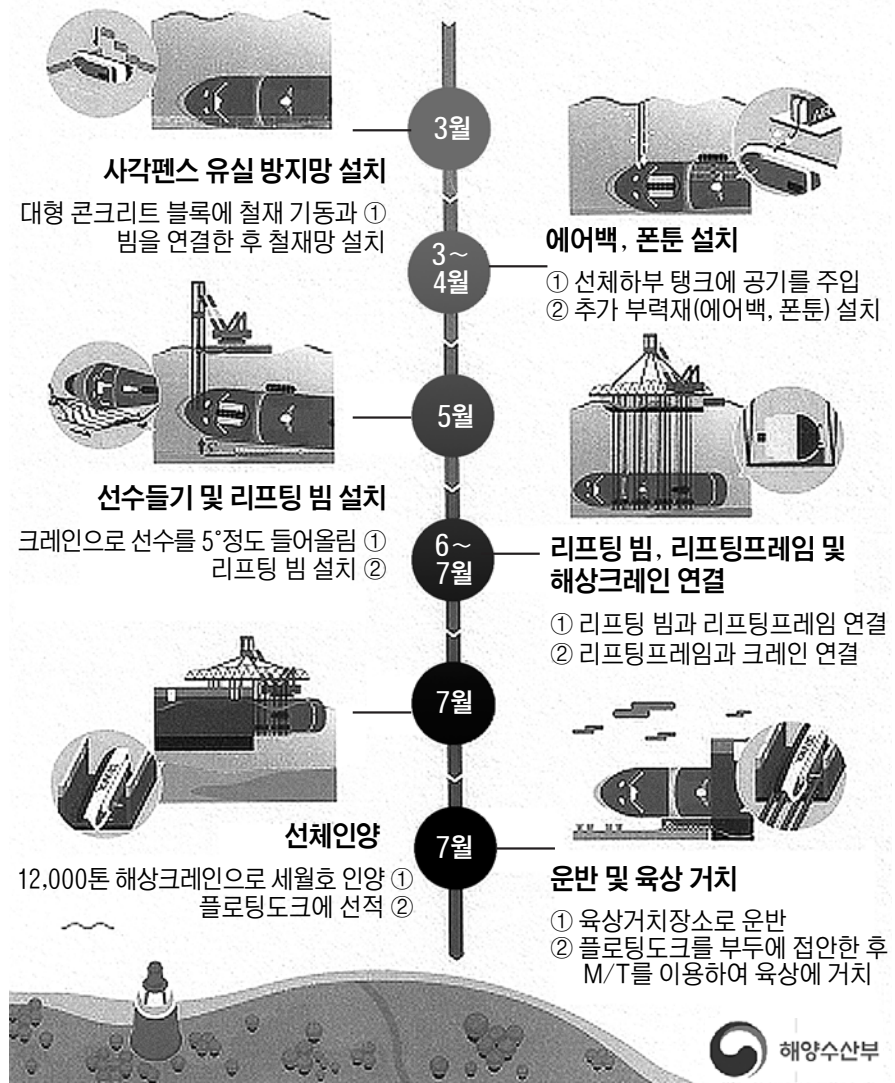
6월에는 들린 뱃머리 아래로 리프팅빔 19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뱃머리를 다시 내린 다음 선미 아래에도 리프팅빔 8개를 넣는 작업이 진행된다. 세월호의 '반침대'가 된 리프팅빔 양끝에는 와이어 92개가 묶인다. 와이어들은 1만2000t급 해상크레인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해상크레인과 연결된 리프팅 프레임에 연결된다.

이후 리프팅빔 등을 설치해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끌어올려 플로팅 독에 올리게 된다.

플로팅 독은 반잠수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세월호를 품은 다음 2~3일에 걸쳐 서서히 부상하는데 이때 침몰 후 처음으로 세월호가 물밖에 모습을 드러낸다. 세월호가 실린 플로팅 독을 예인선으로 끌어 항구로 이동하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세월호 인양공정



법원 "영화 '암살', 최종림씨 소설 표절 아니다"

영화 '암살'이 작가 최종림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표현 방식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영화에 독립투사인 여성 저격수 캐릭터가 등장하고 김구 선생이 암살 요원을 중심으로 보내는 설정 등 여러 내용이 자신의 소설 '코리아나 메모리즈'(2003년 출간)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0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작년 7월 개봉한 '암살'은 1270만여명의 관객을 끌어들여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연합뉴스

승용차 훔쳐 시내 주행한 뒤 제자리 갖다 둔 고교생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타고 시내를 주행한 뒤 제자리에 갖다 둔 10대 고교생들이 경찰에 밀린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4명은 지난달 7일 새벽 3시25분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A(60)씨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다닌 뒤 5시간 후 가져다 두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 2대를 훔쳐 탄 혐의.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인다는 소식을 접한 김군 등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해 "2개 차량 모두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보조석 서랍에 열쇠가 있기에 잠시 몰았을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 (4억) 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 투자/교육 등등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